

# KDC 제5판의 주기분석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Notes Analysis of KDC 5th Edition

정 옥 경(Ok-Kyung Chung)\*\*

### 초 록

분류표에서 주기는 분류항목과 기호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분류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향상시켜 준다. KDC에서도 여러 가지 유형의 주기를 사용하고 있으나, 급변하는 학문의 진전과 확대를 따르기에는 주기의 이용이 상당히 미흡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KDC에 적합한 주기유형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목적을 위하여 KDC의 주기유형의 변천과 DDC23판, NDC신정9판, KDC5판의 서문에 제시하고 있는 주기를 분석하고, 각 분류표에서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주기의 유형을 비교분석하여 KDC5판의 주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ABSTRACT

The notes of the classification system are to improve the accuracy and consistency of classification by providing useful information on classification numbers and items. Even though, several notes are used in KDC, they are not enough to keep up with rapidly developing and expanding knowledge of nowaday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ppropriate types and improvements of the notes in KDC 5th edition. In order to achieve these purposes, transition of notes in KDC was analyzed. Notes of DDC 23rd edition, NDC new 9th edition, and KDC 5th edition were also analyzed. Based upon these comparison and analysis, problem and improvement of notes in KDC were suggested.

키워드: 한국십진분류법, 듀이십진분류법, 일본십진분류법, 주기, 분류표

Korean Decimal Classification, KDC,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DDC, Nippon Decimal Classification, NDC, Notes, Classification System

---

\* 이 논문은 인천대학교 2010년도 자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인천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okchung@incheon.ac.kr)

논문접수일자 : 2011년 8월 19일 논문심사일자 : 2011년 8월 25일 게재확정일자 : 2011년 9월 6일

## 1. 서론

현대의 주요 분류표가 열거식 분류에서 점차 분석합성식 분류의 성격을 도입하여 분류기호의 생성과 합성방법을 설명하고 분류자들이 분류의 오류가 발생되지 않게 도움을 주는 도구로서 주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각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분류표에는 분류표의 효율적인 이용 및 분류작업의 실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여러 가지의 분류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분류표에서의 주기는 이러한 분류지침 중의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주기는 본문의 내용에 대해 설명하거나 추가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하고 있으며, 목록법에서의 주기는 목록기술요소 이외에 서지사항을 설명할 필요가 있을 때 이를 보완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분류법에서 주기는 분류의 특수규정으로서 분류표상에 설치되어 있는 분류항목에 대한 정의나 그 항목에 속하는 범위, 분류항목의 명확성 및 항목간의 관련성, 또는 항목의 세분을 위한 지시나 전개 등에 관련된 사항들을 의미한다. 주기는 분류항목을 설명하거나 기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분류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여주고, 기호합성을 통해 세분 전개할 수 있어 분류표상에서 그 기능이 매우 중요시 되고 있다. 즉 이용자나 관리자적인 측면에서 양자의 욕구를 동시에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지침이기 때문이다.

분류표에서의 주기는 학문의 발전과 함께 그 중요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으며, 주요 분류표에서는 각 분류표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주기를 채택하여 이용하고 있다. KDC 제5판에서도 여러 가지 유형의 주기를 사용하고 있으나, 급변하는 학문의 진전과 확대를 따르기에는 주

기의 이용이 미흡한 실정이다. KDC의 서문에 제시된 8가지 유형의 주기는 초판에서부터 제5판까지 개정되는 동안 아무런 변화도 없이 동일하게 구분 제시하고 있다. 서문에 제시된 주기 유형은 구체적인 설명과 사용지침이 없이 주기의 의미만 포괄적으로 기술하고 있으며, 실제 사용되고 있는 주기 유형의 범주를 구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각 주기의 유형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나 기능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DDC23판은 분류표 서문에 주기를 크게 다섯 가지 범주로 구분하고 개개의 주기유형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와 기능, 적용방법의 명확한 설명과 실제 예를 명시하여 분류자들이 정확하고 일관성 있게 분류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도구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 KDC 제5판에 사용되고 있는 주기는 그 유형의 의미와 기능, 적용방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나 지침이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아 분류 담당자들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분류할 소지가 많아 분류의 정확성과 일관성이 저하되고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 KDC가 5판까지 개정되는 동안 다양한 유형의 주기가 도입되어 사용하고 있지만 그 적용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한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분류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하는 비실용적인 분류표가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KDC가 5판까지 개정되는 동안 주기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DDC 23판, NDC 신정 9판, 그리고 KDC 5판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기를 살펴보고, 비교 분석하여 KDC에서 사용되고 있는 주기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첫째, KDC 초판에서 5판까지 사용된 주기유형의 변

친를 분석하였다. 둘째, DDC 23판, NDC 신정9판, KDC 5판의 서문에 제시하고 있는 주기와 실제 본표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기의 유형을 비교 분석하였다. 셋째, 분석된 결과를 토대로 KDC의 주기에 대한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2. KDC 주기의 변천

KDC는 분류항목만을 나열한 분류표로는 정확하게 분류하기에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주요 분류항목에 주기를 달아 분류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으며, 첩부된 주기는 최대한 간략한 형태를 유지하고자 하였다. KDC는 초판부터 5판까지의 서설에서 '주의 설명' 아래에 주기의 유형을 범주의 구분 없이 동일하게 8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그 주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한국도서관협회 분류위원회 2009, 8).

(1) 주요 분류항목에 대한 정의와 간단한 설명을 가하고, 또 내포된 개념의 범위를 제시하였다.

(2) 분류항목에 관련된 주제와 접근된 주제, 잘못 분류할 가능성이 높은 다른 분류기호를 갖는 주제에 대한 안내사항을 주를 통해 표시하였다.

(3) 분류표전개에 정조의 차이가 있음은 사실이다. 앞으로의 연구를 기다려야 할 세분, 이른바 입석의 토픽에 대해서는 소주제까지 상세히 전개하는 것을 피하고 그 대신 이를 주에 열거하였다.

(4) 고문헌의 분류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특정서명을 주에 예로 든 것이 있다.

(5) 필요한 곳에서는 역시 분류에 도움이 되

도록 인명과 지명을 수록하였다.

(6) 앞의 조기성에서 예시한 각종 조기표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구분의 전개를 지시하고 예를 들었다.

(7) 양자택일이 있는 분류항목 아래서는 도서관에 따라 임의로 택일할 수 있도록 주로 설명하였다.

(8) 분류에서 참조가 필요한 항목에는 주의 끝에 참조표시를 열거하였다.

이상과 같이 8가지로 구분된 주기의 유형은 KDC 초판부터 5판까지 동일하게 서문에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분류표상에 사용된 주기의 유형과 그 형식은 다양하다. KDC 초판부터 3판에 사용된 주기의 유형과 그 형식은 크게 변화된 부분이 없다. KDC 제2판의 개정방침에 보면 "수정 검토의 범위를 가능한 한 줄인다"(한국도서관협회 1966, vi)고 했으며, 제3판의 개정방침에 보면, "보다 완벽한 개정은 제4판으로 미루기로 하고 우선 제3판을 내기로 하되 그 내용개정은 제2판의 뚜렷한 미비부분과 모순된 내용을 최대한으로 보완하는데 그치기로 하였다"(한국도서관협회 분류분과위원회 1980, 6)고 밝혔듯이 제2판에서 항목열거주기를 포함주기로 변경한 것과 3판에서 처음 미사용주기를 도입한 것을 제외하고 크게 변화된 부분이 없다. 4판과 5판에서는 새로운 주기유형이 추가되고, 그 형식도 다소 변화된 부분들이 있다. 그러나 동일한 열거식 분류표인 DDC와 비교하면 아직도 미비하지만 NDC보다는 더 많은 주기를 도입하여 세분 전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KDC 초판부터 5판까지 본표에 사용된 주기유형을 살펴보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KDC 초판부터 5판까지 사용된 주기의 유형

주기의 유형	초판	2판	3판	4판	5판
정의 및 설명주					○
범위주기	○	○	○	○	○
한정주기	○	○	○	○	○
포함주기	○	○	○	○	○
분류지시주	○	○	○	○	○
타분류번호지시주	○	○	○	○	○
보조표첨가주	○	○	○	○	○
세구분지시주	○	○	○	○	○
참조주	○	○	○	○	○
미사용주			○	○	○
재배치주				○	○
이전표목주				○	○
배열주	○	○	○	○	○
별치주	○	○	○	○	○
양자택일주	○	○	○	○	○
사용금지주		○	○	○	○
별명주기				○	○
항목열거주기	○	×	×	×	×

〈표 1〉과 같이 실제 KDC 본표상에 사용된 주기유형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초판부터 3판까지 분류항목수가 크게 늘어나지는 않았기 때문에 사용된 주기유형도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초판에 사용하던 항목열거주가 2판에서 포함주의 형식으로 바뀌었으며, 3판에서는 미사용주기를 새로운 주기로 도입하였다. 4판은 총 분류항목수가 13,074항목으로 3판의 총 분류항목수 9,537항목보다 3,337항목으로 늘어남으로써 이전 분류번호주기와 재배치주기가 도입되고, 분류항목하에 다양한 주기를 제시하여 분류자들이 정확한 분류를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했지만, 주기의 적용방법에 대한 상세한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용자들 개개인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우려가 있는 부분들이 많아 비실용적인 분류표라고 할 수 있다(김자후 1996, 372). KDC

제5판 발간공청회 자료를 보면, “다양한 주기의 도입 및 세분, 분류기호합성방식의 적극적 도입 및 활용, 양자택일주기 기재의 형식화, DDC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종류의 주기도입방안 검토”(한국도서관협회 분류위원회 2008) 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정의 및 설명주기를 도입한 것 외에 달라진 것이 없다. KDC 5판의 총 분류항목수를 보면 제4판보다 44항목 많은 13,118항목이다. 특히 총류(000), 기술과학류(500), 문학류(800)에서는 분류항목수가 4판보다 줄어들었기 때문에 재배치주기의 사용이 많아졌다. KDC에 사용된 주기의 유형을 보면, 초판에서는 범위 및 포함주기, 한정주기, 참조주기, 분류지시주기, 타분류번호지시주기, 양자택일주기, 보조표첨가주기, 세구분지시주기, 배열주기, 항목열거주기, 별치주기 등 12종의 주기가 사용

되었으며, 5판에서는 정의 및 설명주기, 범위주기, 한정주기, 포함주기, 참조주기, 분류지시주기, 타분류번호지시주기, 재배치주기, 이전표목주기, 보조표첨가주기, 세구분지시주기, 양자택일주기, 미사용주기, 사용금지주기, 별치주기, 배열주기, 별명주기 등 17개의 유형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권홍정(2002)과 이승민(2000)은 KDC4판을 기준으로 주기의 유형을 14가지와 13가지로 구분하였는데, 이는 각괄호를 사용하여 이 전판의 분류기호의 삭제 또는 재배치를 알려주는 미사용주의 포함여부의 차이이다. 윤희운(2010)은 KDC 5판을 기준으로 주기의 유형을 정의주기, 첨가주기, 분류지시주기, 타분류지시주기, 세분지시주기, 포함주기, 양자택일주기, 참조주기 등 8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KDC 초판부터 5판까지의 서설에 제시된 주기의 유형은 동일하지만, 실제 본표에 사용된 주기의 유형을 비교해 보면 <표 1>과 같이 판에 따라 동일하지 않으며, 주제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었다.

이상과 같이 KDC 초판부터 5판까지 사용된 주기의 유형을 살펴본 결과 포함주기, 참조주기, 재배치주기, 미사용주기 순으로 많이 사용되어졌으며, 판을 개정함에 따라 특히 포함주가 많이 늘어났음을 알 수 있었다. 어떤 주제가 표목의 일부는 아니지만 표목에 포함시키도록 명시한 포함주기와 관련 주제를 참조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참조주기를 통하여 분류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기할 수 있고, 또한 주제의 구분과 세분을 위한 구분 및 세분지시주기와 보조표첨가주기 등을 사용하여 분류기호의 중복을 피할 수 있어 원하는 자료에 접근이 보다 더 용이하게 된다. KDC의 모든 판 서설에서 “학문이 나

날이 발전되어 출판물이 홍수와 같이 쏟아져 나오에 따라 분류표의 조직도 더욱 복잡해져 가고 있음은 물론이다. 따라서 이제는 종전과 같이 분류항목만을 배열한 분류표로서는 정확한 분류를 하기 힘들게 되었다. 이에 대비하여 KDC는 주제 분류항목에 될 수 있는 한 간략한 주를 달아 분류자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한국도서관협회 분류위원회 2009, 8)고 했듯이 향후 개정판에서는 명확하게 본표에 사용되고 있는 주기의 유형과 그 적용방법을 상세하게 명기하여 분류자들의 자의적인 판단과 해석으로 분류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다양한 유형의 주기를 필요한 표목아래에 적절히 사용하여 기호를 합성하거나 세분 전개할 때 정확성과 일관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3. 주요 분류표의 주기분석

분류표에서 주기는 표목만으로는 분류하기 힘든 항목 아래에 설명되어 정확한 분류를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 주는 도구이다. 세계 각국의 주요 분류표에서는 이러한 주기의 기능을 적용하고 있으며, 각 분류표에서의 주기의 유형 또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KDC, DDC, NDC에서는 각 분류표가 사용하고 있는 주기의 유형과 그 사용방법을 서문에 지침으로 제시하고 있다. 분류표에서 채용하고 있는 주기는 자국의 특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해당 분류표의 특성에 맞는 독창적이고 다양한 주기 유형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각 분류표에 사용하고 있는 주기유형을 살펴보고자 한다.

### 3.1 DDC 23판의 주기

DDC 23판은 이전 판보다 분류업무의 효율성과 정확도를 향상하여 2011년 5월에 간행되었으며, 전자버전인 Webdewey 2.0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Dewey service 2011). 주기는 순서, 구조, 종속관계, 그 밖의 다른 문제들과 관련하여 기호의 계층구조 또는 표목에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DDC 23판에서는 KDC나 NDC에서 사용하지 않는 주석(footnotes)이 있다. 주석은 하나의 류(類)와 하나의 류내에 주제를 위한 다수의 세목에 적용을 지시할 때 사용된다. 또한 매 뉴얼에서 개개 표목을 주기로 고려해 넣었다. DDC 23판의 서문에 명시된 주기의 유형을 크게 4가지로 범주화하고 있다(Dewey 2011, 14). 첫째, 해당 분류항목과 그 세목에 나타나 있는 것을 설명하는 주기, 둘째, 입석에 주제를 식별하는 주기 즉, 자체의 기호를 갖기에는 문헌이 불충분한 주제를 확인시켜 주는 주기, 셋째, 다른 류에 나타나 있는 것을 설명하는 주기, 넷째, 본표와 보조표의 변경사항을 설명해 주는 주기 그리고 이 4가지 범주 이외 본표와 보조표에서 세분 전개하고, 도서관의 특성에 따라 분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타 분류방법을 지시하는 주기'로 기호합성에 관련된 주기, 열거순서 및 우선순위주기, 편람참조주기, 임의규정(선택사항)에 관한 주기 등이 마련되어 있다. 첫째와 셋째범주의 주기는 특정한 번호의 모든 세목하에 적용할 수 있는 계층적 구속력을 가진다. 둘째의 범주에 해당하는 주기들은 계층적인 구속력을 가지지 못한다.

DDC 23판 서문에 명시된 주기의 유형을 5가

지 범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Dewey 2011, 14-38).

첫째, 해당 분류항목과 그 세목을 설명하는 주기로는 정의주기(definition notes), 범위주기(scope notes), 기호합성주기(number built notes), 이전표목주기(former heading notes), 별명주기(variant names notes), 분류지시주기(class here notes)가 있다. 이들 주기는 해당 분류항목의 사용된 용어의 의미와 상·하위관계, 기호합성의 근거를 알려주고, 이전표목과 동의어를 제시하고, 해당분류항목에 포함되는 주제를 제시함으로써 분류자들의 정확한 판단을 도와 분류의 오류를 막아 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

둘째, 입석의 주제를 식별해 주는 주기로는 포함주기(including notes)가 있다. 포함주기는 "입석(standing room)"의 주제들을 식별한다. 입석기호들은 해당 주제에 관하여 쓴 비교적 적은 양의 저작과 그 주제들에 위치를 제공하지만, 장차 이러한 문헌이 증가하게 되면, 그 때에 그 문헌들은 자체의 번호를 부여받게 된다. 포함주기는 'Including'이라는 용어로 지시하고 있다.

셋째, 다른 분류항목에 나타나 있는 것을 설명해 주는 주기로는 타분류번호 지시주기(class-elsewhere notes), 보라 참조(see references), 도보라 참조(see also references)가 있다. 타분류번호 지시주기는 상호관계가 있는 주제로 안내하거나, 동일한 계층구조에 있는 기호들을 구별할 수 있도록 'class~'란 단어를 앞세워 지시하고 있다. 보라 참조(see references)는 어떤 개념을 포괄적인 번호로부터 다른 계층구조에 있는 개념의 하위부분으로 안내하기 위하여 사용된

다. “For”라는 단어로 시작되며 이탤릭체로 표기되어 있다. 도보라 참조(see-also references)는 관련된 주제로 분류자를 안내하며, 어법과 문맥상의 작은 차이가 분류상에 차이를 수반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준다. ‘see also’라는 단어로 시작되며 이탤릭체로 표기되어 있다. 이들 주기는 해당분류항목과 상호 관계가 있는 주제를 연계하여 정확하고 일관된 분류를 할 수 있도록 지시하고 있다.

넷째, 본표와 보조표의 새로운 변경사항이나 특별규정으로 발생한 본표와 보조표의 불규칙성을 설명하기 위해 지시하고 있는 주기로는 개정주기(revision notes), 미사용주기(discontinued notes), 재배치주기(relocated notes), 사용금지주기(do not use notes)가 있다. 이들 주기는 해당 분류항목의 세목에서 변경된 사항을 알려주고, 분류기호의 전부 또는 일부가 동일한 계층구조에서 보다 더 상위의 기호로 옮겨졌거나 완전히 삭제된 경우와 다른 기호로 옮겨진 경우를 알려주고, 표준세구분표와 부가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금하고 특수규정이나 상위번호에 표준세구분표의 기호를 대신 사용하도록 지시하여 새로운 판의 특별규정과 변경사항을 정확하게 이해하여 분류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

다섯째, 4가지 범주에 해당하는 주기유형 이외 기타 분류방법을 지시하는 주기로 기호합성(number building), 인용순서 및 우선순위(citation and preference order), 편람(manual), 임의규정(options) 등에 관한 주기 등이 마련되어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호합성에 관련된 주기는 DDC의 기호합성의 중심이 될 뿐만 아니라 DDC를 올바르게 사

용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완전한 이해가 수반되어야 한다. DDC 23판에서는 본표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번호를 부여하거나 합성이 필요한 어떤 저작에 대해 명확한 번호를 만들어 내기 위하여 기호합성을 주기로 지시하고 있다. 이러한 기호합성에는 보다 더 깊이 있는 내용분석이 필요하며, 본표에 지시가 있을 때만 사용된다. 기호합성은 다른 기호가 부가된 기본번호에서 시작하며, 항상 지시주기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열거식 분류인 DDC에 분석합성식 분류법의 요소를 도입하여 확장 전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호합성에는 ① Table 1 표준세구분표기호의 합성, ② Table 2-6의 기호합성, ③ 본표의 다른 부분의 기호합성, ④ 본표의 부가표에 제시된 기호합성 등이 있다. 자세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Dewey 2011, 21).

Table 1 표준세구분표의 기호합성은 일반적으로 세자리 기호로 채워진 것을 제외하고는 본표에 열거하지 않고 주기로 지시하고 있다. Table 2-6의 기호합성은 본표의 기본번호에 부가하여 확장 전개하도록 ‘Add to base number ~ notation ~ from Table 2-6’와 같은 주기형식으로 지시하고 있다. 본표의 다른 부분의 기호합성은 ‘Add to base number ~ the numbers following ~’과 같은 형식으로 지시하고 있다. 특히 DDC에는 NDC와 KDC에는 없는 별도의 부가표가 특정주제를 확장 전개할 때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본표에 마련되어 있다. 부가표를 적용하여 세분할 표목 앞에 별표(\*)가 있으며 각 주에 ‘Add as instructed under ~’의 형식으로 부가지시를 하고 있다. 이 부가표는 지시된 곳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열거순서 및 우선순위에 관련된 주기는 어떤

주제에 나이, 지역, 성별, 시대, 국적 등과 같은 다양한 측면과 특성이 나타나 있거나, 한 저작이 그와 같은 측면과 특성 중 둘 이상을 다루고 있을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알려준다. 이 주기는 기호합성의 순서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둘 이상의 측면과 특성을 다루고 있는 저작은 우선순위표에 따라 분류할 수 있도록 지시하여 분류자가 정확하게 기호합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분류의 오류가 발생하지 않고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매뉴얼참조주기(See-Manual reference)는 DDC에만 있는 주기로서 어려운 분야를 분류할 때 도움을 주고, 연관된 번호들 간에 선정지침을 제공하여 준다. 이탤릭체 'See Manual at ~'의 형식으로 지시하고 있다. 특히 본표와 보조표에 지시되어 있는 매뉴얼참조주기는 분류담당자로 하여금 명확한 기호, 기호의 범위, 관련 기호들 간의 선택에 관한 부가정보를 제공하여 분류의 정확성을 높여주고 있다.

임의규정주기(Option notes)는 선택사항으로 양자택일주기라고도 하며 관할구역, 민족 및 국가군, 언어, 주제, 또는 다른 특징들을 강조하기 위하여 분류표 전반에 제공된다. 본표와 보조표에서 표준적인 기호법의 우선적인 처리에 제시되어 있지 않은 도서관장서의 특정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 제공하고 있다. 임의규정은 관할구역, 민족 및 국가군, 언어, 주제 또는 기타 특징을 강조하기 위해 분류표 전반에 제공된다. 주기에 기술된 임의규정주기는 괄호로 묶어 표시되며, "Option"으로 시작된다. 언어와 문학에서는 자국어와 자국문학을 우선적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주기가 제시되어 있다. 또한 괄호로 묶어 기재되지는 않지만 임의규정주기

로 알파벳순배열주기와 연대순배열주기가 있다. 이 주기는 도서관에 따라 필요할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안한 것이지, 반드시 사용할 필요는 없다.

이상과 같이 DDC 23판에서 사용되고 있는 주기는 여타의 분류표에 사용되고 있는 주기유형보다 다양하다. 분류자가 정확하게 적용하여 분류할 수 있도록 분류표의 서문에 각각의 주기유형의 의미와 기능, 그 적용방법이 지침으로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다. 필요한 항목 아래 주기를 충분히 설정하여 분류자가 정확한 분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주기의 적용방법을 자세하게 기술하고 실례를 제시하여 분류의 오류를 막아 주고 있으며, 분류표의 항목설치를 축소하면서도 많은 양의 문헌을 분류할 수 있도록 기호합성에 관련된 주기로 보조표 첨가주기, 본표 내의 별도의 부가표, 다른 분류항목에 일부 기호첨가 주기 등을 사용하여 세분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특히 항목전개가 구미위주로 편중되어 불균등한 단점을 없애려고 임의규정 즉 양자택일의 주기방식을 도입하여 도서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분류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세계의 많은 국가에서 DDC를 쓸 수 있는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있다. 지금까지 DDC가 138개국 이상의 도서관에서 장서의 체계적인 조직과 접근에 사용하며, 60개국 이상의 국가서지에 DDC 번호가 부여되어 실용적인 분류시스템으로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유별화, 브라우징, 탐색의 지원으로 web상에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이 사용되고 있어(Dewey 2011, 2) 온라인상에서도 DDC를 활용하여 쉽게 분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3.2 NDC 신정9판의 주기

NDC신정9판에서의 주기는 분류항목을 구성하는 분류기호와 분류항목명에 관계가 있는 사항을 보충하기 위하여 주기와 참조 및 주참조를 첨부하여 표목 이외의 사항으로서 표목을 설명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보충하여 표시한 것을 의미한다. 또한 주기는 분류표의 분류전개 항목수는 줄여주고 기호합성으로 더 많은 양의 세밀 분류를 할 수 있게 해주며, 또한 분류표가 방대해 짐을 피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분류 업무를 신속, 정확하고 편리하게 하고 있다.

NDC에서는 “분류기호의 적용이 적절하지만 특히 배려가 필요한 곳에는 주기로 지시한다” (일본도서관협회 1995, xxi)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주기의 앞에 별표(\*)를 두어 주기유형을 분류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으며, 이하의 순서에 주기내용을 열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NDC신정9판 서문에 명시되어 있는 주기는 크게 세분주기, 범위주기, 별법주기 등 3가지 범주로 구분하고, 범위주기 아래에 한정주기, 포함주기, 배제주기, 분산주기 등으로 세분하고, 참조 및 주참조 주기를 사용하여 총 8가지의 주기유형을 사용하고 있다. NDC 신정9판에 사용하고 있는 8가지의 주기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일본도서관협회 1995, xxi-xxii).

첫째, 세분주기: 보조표 첨가주기로 분류항목의 세분방법을 지시한다.

- 예: 334.4 移民 [來住民]. 亂民問題, 移民  
[來住民]. 亂民定策  
\*受入國による地理區分

둘째, 범위주기

a) 한정주기: 해당 분류항목에 포함되는 범위의 한정을 지시한다.

- 예: 448 地球, 天文地理學  
\*ここには, 天文學的にみた地球を收める

b) 포함주기: 분류항목명, 분류소항목명, 관련항목명에 표시될 수 없지만 특정사항이 그 분류항목에 포함되는 것을 지시한다.

- 예: 324.86 登記法, 不動産登記法  
\*土地家屋臺帳法はここに收める

c) 배제주기: 관련은 있지만, 해당분류항목의 범위에는 포함되면서 다른 분류항목에 수용된 사항을 지시한다. 참조형식으로 표시한 것도 있다.

- 예: 007 情報科學  
\*電子計算器などのハードウェアは, 548に收める

d) 분산주기: 해당분류항목에는 기본적으로 종합적인 것을 분류하고, 특정분야에 의존되거나, 응용된 것은 그 주제하에 분산하여 분류하도록 지시한다.

- 예: 451 氣象學  
\*應用氣象は, 關聯主題の下に收める

例 517.15 水理氣象

셋째, 별법주기는 전문도서관 등과 같은 특정분야의 도서를 중심으로 장서량이 증가하고 있는 도서관에서는 해당 특정분야에 관련도서를 가능한 한 집중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다. NDC에서는 이러한 요구에 대비하여, 일반적으로 다른 학술 및 연구 분야에 우선하여 분

류하는 별법을 상당수 채택하고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예: 509.6 生産管理. 生産共學. 管理工學  
\*別法: 336.6

별법으로 지시된 분류항목은 분류기호를 각 괄호에 넣어서 표시하고 '보라' 참조를 붙이고 있다.

예: [336.6] 生産管理. 生産共學. 管理工學  
→ 509.6

넷째, 참조 및 주참조 주기: 분류체계의 직접적인 전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분류항목 간의 관계를 서로 표시할 때 사용한다.

a) 보라 참조는 일방적인 직접참조를 의미하며 화살표(→)로 분류기호를 지시한다.

① 별법주기에 있는 별법의 분류기호로부터 통상 사용하는 분류기호로 지시  
예: [253.96] ハワイ → 276

② 형식구분의 축약관계의 지시  
예: [340.2 → 342]

b) 도보라참조는 상호 연결해 주는 참조로서 해당분류항목의 주제와 관련이 있는 다른 관점에서의 분류항목들 간을 연결할 때 사용하며 화살표(→:)로 분류기호를 지시한다.

예: 383.91 民家 →: 521.86  
521.86 民家. 町家

c) 주참조(注參照)는 배제주기에 있는 주기형식의 대신으로 '-'를 보라참조로 지시한다.

예: 346.7 間接稅: 物品稅  
\*關稅 → 678.3

이상과 같이 NDC에서도 여러 가지의 주기유

형을 사용하고 있으며, 다른 분류표와는 달리 별표(\*)를 사용하여 주기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 또한 주기를 지시함에 있어 그 표현형식을 상당히 간략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특정분야의 도서를 중심으로 장서를 늘려가는 도서관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는 주기의 활용이 상당히 빈약함을 알 수 있으며, 지시되고 있는 주기의 유형을 보더라도 8가지에 불과하다. 이는 NDC를 사용하여 분류할 경우 세분 전개하기가 어렵게 되어 원하는 주제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분류의 효과가 줄어들게 되는 단점이 있다.

### 3.3 KDC 제5판의 주기

KDC 제5판에서는 분류항목만을 나열한 분류표로는 정확한 분류에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주요 분류항목에 주기를 달아 분류자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였으며, 부가 지시된 주기는 최대한 간략한 형태를 유지하고자 하였다. KDC는 초판부터 5판까지 서문에서 주기유형을 범주의 구분 없이 크게 8가지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본표를 분석해 보면 임의적으로 양자택일주기, 배열주기, 한정주기, 별치주기가 있고, 보조표 첨가주기로 세구분지시주기 등 다양한 유형의 주기를 도입하여 세밀 분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KDC 제5판에 사용된 주기유형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도서관협회 분류위원회 2009).

(1) 정의 및 설명주기: 분류항목에 대해 간결하게 정의하거나 설명해 주는 주기로서 '~를 의미한다', '~를 말한다'는 형식으로 지시한다. 이 주기의 사용이 아주 미흡하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005.137 비주얼 프로그래밍 언어

비주얼 프로그래밍 등을 이용해  
구현한 언어들을 말한다.

(2) 범위주기: 분류항목에 내포된 개념의 범위를 나타내는 주기로서 포함주기와 동일한 ‘~을 포함한다’는 형식을 사용하고 있어 분류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392.19 전쟁사

군사적 견지에서 다룬 것만을 포함한다.

(3) 한정주기: 자료가 여러 주제에 분산되어 분류되는 것을 막고 하나의 주제에 집중적으로 모일 수 있게 한정하여 주는 주기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001 지식, 학문 일반

학문 일반에 관한 저작으로서 특정 국가에 한정된 것은 그 국가의 역사와 함께 분류한다.

(4) 포함주기: 분류항목에 관련된 주제 및 접근된 주제의 포함을 표시하는 주기로서 KDC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026.3 공공도서관

공립 및 사립 공공도서관을 포함한다.

185 생리심리학

신체기능과 정신과정의 상관에 관한 종합저작을 포함한다.

537 수리공학 Hydraulic engineering

유수측정, 수리학, 수리기상, 수리통계, 수력공학 등을 포함한다.

(5) 분류지시주기: 분류항목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종속적인 주제를 그 항목에 분류하도록 지시하는 주기로 ‘~은(는) 여기에 분류한다’의 형식으로 지시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87.41 유령

고스트(ghost), 도깨비, 몽달귀신은 여기에 분류한다.

(6) 타분류번호지시주기: 한 주제의 특정부분이나 관련 주제를 다른 분류기호에 분류하려고 지시하는 주기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80 심리학

특수주제의 심리학은 그 주제하에 분류한다.

187.3 예언

종교에 있어서의 예언은 그 종교하에 분류한다.

187.4 귀신론

유령, 요괴는 187.41에 분류한다.

(7) 보조표 첨가주기: 보조표의 조기성을 이용하여 각종 보조표의 기호를 첨가하여 세분 전개할 수 있도록 ‘~에 따라 구분한다’, ‘~에 따라 세분한다’는 형식으로 지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015 국가별 서지 및 목록

지역구분표에 따라 세분한다.

081.1-.99 언어에 의한 일반 개인전집

710-799와 같이 구분한다.

724 어휘

714와 같이 구분한다.

809.1-.8 각 문학형식의 역사

문학형식구분표에 따라 세분한다.

(8) 세구분지시주기: 해당 분류항목의 세분 전개방법을 지시하는 주기로서 '~와 같이 주제 구분 한다', '~와 같이 세분 한다'는 형식의 단순한 지시를 하고 있다. 분류자들이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분류를 할 수 있도록 기호합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025.25 정보탐색 및 검색서비스

주제별 정보탐색 및 서비스는  
001-999와 같이 주제구분한다.  
예: 물리학 정보검색 025.2542

375.2 초등교육

375.21-.22는 371-372와 같이 세분한다. 예: 초등학교 학교급식 375.2344

(9) 참조주기: 어떤 주제로부터 관련된 주제의 개념을 참조할 수 있도록 화살표(→)로 지시하거나 안내해 주며, 다른 사항의 참조를 지시하는 주기이다. 참조할 주제와 분류번호를 보라와 도보라 참조로 제시하고 있는 DDC와는 다르게 KDC는 단순하게 화살표로 참조할 분류기호만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699.5 사냥(수렵)

수렵업 → 529.9

(10) 미사용주기: 이전 판의 분류기호가 더 이상 사용되지 않거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하위의 기호로 옮겨졌을 때 지시해 주는 주기로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685.4] 탭댄스

685.42에 분류한다.

(11) 재배치주기: 분류항목의 위치가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알려주는 주기로 변경된 분류항목이 이전에 있던 위치를 지시해 주는 주기로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685.42 탭댄스 [전 685.4]

(12) 이전표목주기: 표목이 이전 표목과 다르게 변경되었음을 알려주는 주기로서 구표목 주기라고 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068 하와이 Hawaii [전 하와이제도]

(13) 배열주기: 도서관의 자료를 분류기호에 의하지 않고 임의적인 방법으로 배열할 수 있도록 지시해 주는 주기로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52.6 청시대

도서관에 따라 구분하지 않고 저자명의 가나다순으로 단일 배열할 수 있다.

(14) 별치주기: 임의주기라고도 하며 자료의 특색에 따라 임의로 별치기호를 주어 분류할 수 있도록 하는 주기이다. 주로 특수목적이나 이용자의 성격에 따라 주제가 분류될 수 있는 전문도서관이나 특수도서관에서 사용되는 주기로서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989 지도 및 지도책 Maps and atlas

도서관에 따라 지도는 989 대신에 M을 분류기호 앞에 붙여서 사용할 수 있다. 예: 아시아지도 M981

(15) 양자택일주기: 도서관이나 이용자의 성격에 따라 분류자가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지시하는 주기로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016 주제별서지 및 목록 Subject

bibliographies and catalogs

단일 주제의 서지 및 목록을 포함한다.  
001-999와 같이 주제구분한다.  
도서관에 따라 주제별서지 및 목록을  
각 주제하에 분류할 수 있다. 예: 법률  
서지 및 목록 360.26

(16) 사용금지주기: DDC에서 'Do not use for ~'의 형식으로 많은 분야에서 사용하고 있지만, KDC5판에서는 988 해양에서 유일하게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988 해양 Oceans, Seas

이 해양구분은 해양지, 어업, 생물학  
등에 이용되나, 육지의 지역구분과 병  
용하지 않는다.  
지역구분표 81-88과 같이 세분한다.

(17) 별명주기: 표목의 동의어나 유사 동의어를 설명한 주기로서 제4판부터 도입된 주기로서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581.155 매몰주조(Investment casting)

정밀주조(precision casting), 로  
스트 왁스(lost-wax)법이라고도  
한다.

이와 같이 KDC 제5판에서 실제 사용되고 있는 주기유형은 17종이다. 가장 많이 사용된 주기유형은 포함주기이며, 전체 사용빈도는 32.74% 총 3,195개가 사용되고 있다(권홍정 2002, 71). 특히 4판에서 불합리하게 전개된 부분과 일부 조정이 이루어진 표준구분표의 시대구분과 지역구분표를 상세히 전개함으로써 재배치주기의 사

용이 많아졌으며, 단 한번 사용된 주기유형(별명주기와 사용금지주기)도 있다. 이렇게 다양한 주기를 필요한 분류항목 하에 명시함으로써 분류표에 세분 전개되어 있지 않는 주제들도 세밀 분류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도구의 기능을 하고 있다. KDC의 주기는 DDC와 NDC를 상당부분 수용하여 편성하고 있지만, KDC만의 특성들을 내포하고 있는 독창적인 주기유형을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KDC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기 중 고문헌의 분류에 도움을 주기 위한 특정서명의 예시와 인명 및 지명을 수록한 것은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KDC만의 고유한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서문에 제시된 8가지 주기 유형은 각 주기가 내포하는 의미와 기능, 그 적용방법에 대한 지침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아 분류기호를 합성하여 세분 전개할 때 혼란과 오류가 생길 수 있으므로 향후 개정시에는 반드시 본표에 사용된 주기유형의 의미와 기능, 적용방법을 상세하게 지침으로 제시하여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4. DDC 23판, NDC 신정9판, KDC 제5판과의 주기유형 비교분석

DDC 23판, NDC 신정9판, KDC 제5판 등의 서문에 제시되어 있는 주기유형을 보면 DDC는 20가지, NDC는 9가지, KDC는 8가지가 있다. NDC와 KDC는 실제 분류표에서 사용되고 있는 주기유형은 더 다양하다. 이렇게 다양한 주기들은 각각의 분류표내에서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기도 하며, 독자적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실제 분류

표에서 사용되고 있는 주기유형과 그 형식을 DDC23판에서 구분한 범주를 기준으로 비교해

보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2>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분류항목이나

<표 2> DDC23, NDC9, KDC5에 사용된 주기유형과 형식

주기범주	DDC23주기유형	NDC9 주기유형	KDC5 주기유형
해당 분류항목과 그 세목에 나타나 있는 사항을 정의하고 설명하는 주기	① 정의주기(표목의미설명) ② 범위주기(관련주제설명) ③ 기호합성주기(Number built according to instructions under ~) ④ 이전표목주기(Former heading: ~) ⑤ 이전분류번호주기(Formerly ~) ⑥ 별명주기(Variant name: ~) ⑦ 분류지시주기(Class here ~) ⑧ 제한주기*(Not limited to~)	① 정의 및 설명주기(~의 意味論) ② ~한정주기(~を收める)	① 정의 및 설명주기(~을 의미한다, ~을 말한다) ② 범위주기(~만을 포함한다) ③ 이전표목주기*([전표목]) ④ 별명주기*(~라고도 한다) ⑤ 한정주기*(~와 한정된 것은 ~와 함께 분류한다) ⑥ 분류지시주기(~는 여기에 분류한다)
입석에 주제를 식별해 주는 주기	⑨ 포함주기(Including ~)	③ 포함주기(ここに包含する) ④ 항목열거주기*(~を包含する)	⑦ 포함주기(~을 포함한다, ~등을 포함한다, ~에 중첩저작을 포함한다)
다른 분류항목에 나타나 있는 사항을 지시하는 주기	⑩ 타분류번호지시주기(Class~) ⑪ 보라참조주기(For~, see~) ⑫ 도보라참조주기(For~, see also~)	⑤ 배제주기(~は, ~に收める) ⑥ 분산주기(~の下に收める) ⑦ 보라참조주기(→~) ⑧ 도보라참조주기(→: ~) ⑨ 타주기참조주기*(~の註記を参照)	⑧ 타분류번호지시주기(~은 그 주제하에 분류한다, ~에 분류한다) ⑨ 참조주기(→~)
본표나 보조표의 변경사항과 불규칙성을 설명하는 주기	⑬ 개정주기(For an example of a new schedule note, see ~) ⑭ 사용중지주기(Number discontinued: class in~) ⑮ 재배치주기(Relocated to ~) ⑯ 사용금지주기(Do not use ~: class in ~)	⑩ 재배치주기*(391.02→391.2)	⑩ 미사용주기*([ ] ~에 분류한다) ⑪ 재배치주기*([전~]) ⑫ 사용금지주기*(~하지 않는다)
기타 분류방법을 지시하는 주기	※기호합성에 관련된 주기: ⑰ 표준세구분 첨가주기(Standard Subdivisions are added for~) ⑱ 보조표 첨가주기(Add base number ~ notation ~from T.2-6) ⑲ 세목첨가주기(Add base number ~the numbers following ~) ⑳ 부가표첨가주기(Add as under ~) ㉑ 시대구분부가표주기*(Add to ~notation ~from the period table under ~) ㉒ 열거순서주기(Add to base number ~ notation ~ from T. 2-6, then add 0 add numbers) ㉓ 우선순위주기(b. Unless other instructuions are given, observe the following table of preference) ㉔ 매뉴얼 참조주기(See Manual at ~) ㉕ 임의규정(Options) ㉖ 알파벳순 및 연대순배열주기(Arrange ~ by name of ~)	⑪ 세분주기=보조표 첨가주기 (~による地理區分) ⑫ 일반보조표이용주기*(言語區分, 海洋區分) ⑬ 본표내의 보조표이용주기*(テーブルにより共通的に區分することができる) ⑭ 별법주기(*별법: ~)	⑬ 보조표 이용주기=보조표첨가주기(~에 따라 세분한다, ~와 같이 구분한다) ⑭ 세구분지시주기(~와 같이 주제구분한다, ~와 같이 세분한다) ⑮ 별치주기*(도서관에 따라 ~을 분류기호 앞에 붙여서 사용할 수 있다) ⑯ 양자택일주기(도서관에 따라 ~에 분류할 수 있다.) ⑰ 배열주기*(도서관에 따라 ~하지 않고 가나다순으로 배열할 수 있다)

\*는 서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은 주기유형을 의미함

분류번호에 제시하고 있는 주기의 유형은 서문에 제시하고 있는 것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주기가 사용되고 있으며, NDC와 KDC에 비해 DDC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기의 유형이 다양함을 알 수 있다. 또한 각 분류표에서 사용되고 있는 주기 유형이 DDC, NDC와 KDC에서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도 있으며, DDC와 NDC에서는 사용되고 있으나 KDC에는 사용되지 않고 있는 주기도 있다.

〈표 2〉에서 구분한 주기를 범주별로 자세히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해당 분류항목과 그 세목에 나타나 있는 사항을 정의하고 설명하는 주기는 분류항목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분류할 수 있도록 해당분류항목하에 명확하게 기술해 주어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 주기로 DDC의 정의주기, 범위주기, 별명주기, 한정주기 등이 있고, NDC에는 정의 및 설명주기와 한정주기가 있고, KDC에는 정의 및 설명주기, 범위주기, 별명주기, 한정주기 등이 있다. 또한 해당 분류항목 내에 분류될 주제를 제시하고 있는 분류지시주기가 있어 분류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된다. NDC에서는 한정주가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으며, KDC에는 분류지시주기가 사용되고 있다. 특히 DDC에서는 이전 판과 다르게 나타나는 항목에 대한 설명을 주기의 형태로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으며, 어떤 특정한 분류항목이 포함하고 있는 범주를 설명하는 유형의 주기가 풍부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는 이전 판과의 연계성 및 분류표 자체의 일관성을 유지시켜 주며, 해당 분류항목의 의미와 범주를 명확히 해줌으로써 분류의 오류를 막아 주고 있다.

둘째, 입석에 주제로 식별해 주는 주기로는

DDC의 포함주기, NDC의 포함주기와 항목열거주기, KDC의 포함주기가 있다. DDC와 NDC에서는 해당 분류항목이 포함하고 있는 종속적인 주제들을 주기의 형식으로 명확하게 나열하고 있다. KDC는 해당 분류항목이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 종속적인 주제의 나열인 경우도 있지만, 해당 분류항목이 포함하고 있는 주제의 범주를 지시하기도 한다.

셋째, 다른 분류항목에 나타나 있는 사항을 지시하는 주기로는 DDC의 타분류번호지시주기와 보라 및 도보라 참조주기가 있고, NDC에는 배제주기, 분산주기, 보라 및 도보라 참조주기, 타주기참조주기 등이 있고, KDC에는 타분류번호지시주기, 참조주기 등이 있다. DDC와 KDC에서는 타분류번호지시주기를 사용하여 보다 세부적인 항목으로의 분산을 지시하고 있다. NDC에서는 다양한 표현형식을 취하여 하나의 분류항목에 주제가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제 및 분산주기를 사용하고 있다. DDC와 NDC에서는 보라 및 도보라 참조주기를 사용하고 있지만 KDC에서는 보라 참조와 도보라 참조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형식으로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분류항목의 정확한 세분을 어렵게 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개정 시에는 보라 및 도보라 참조의 형식을 구분하여 제시해야 할 것이다. DDC에는 NDC와 KDC에 없는 매뉴얼 참조주기가 있어 본표와 보조표의 많은 기호들이 매뉴얼 상에 명시된 구절을 참조하여 정확한 세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넷째, 본표와 보조표의 변경사항과 불규칙성을 설명하는 주기로는 DDC의 개정주기, 사용금지주기, 재배치주기, 사용금지주기 등이 있고, NDC에는 재배치주기, KDC에는 미사용주

기, 재배치주기, 사용금지주기 등이 있다. 해당 분류항목의 세목에서 변경되어 진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려주는 개정주기는 DDC에서만 사용되고 있으며, 재배치주기는 DDC, NDC, KDC 모두에 사용되고 있다. DDC의 재배치주기는 'Relocated to ~'를 앞세워 재배치된 분류번호나 주제를 제시하고 새로이 재배치된 분류번호에는 '[formerly ~]'라는 형태로 이전에 사용되었던 분류번호를 알려주고 있다. NDC에서는 분류번호 자체에 각괄호([ ])를 두고 어느 분류번호로 재배치되었는지를 명시하고 있을 뿐 다른 설명은 기술하지 않고 있으며, KDC는 해당 분류항목 옆에 '[前 분류번호]'이라는 형식을 이용하여 재배치되기 이전의 분류번호를 알려주고 있으며, 재배치되기 이전의 분류항목에는 변경된 기호를 지시해 주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다섯째, 기타 분류방법을 지시하는 주기로는 DDC의 기호합성에 관련된 T.1 첨가주기, 보조표 첨가주기(T.2-6), 세목첨가주기, 부가표 첨가주기, 시대구분부가표주기, 열거순서주기, 우선순위주기, 매뉴얼 참조주기와 임의규정, 알파벳순 및 연대순배열주기 등이 있고, NDC에는 세분주기(보조표 첨가주기), 일반보조표이용주기, 본표내의 보조표이용주기, 별법주기 등이 있고, KDC에는 보조표이용주기(보조표첨가주기), 세구분주기, 별치주기, 양자택일주기, 배열주기 등이 있다.

DDC, NDC, KDC에서는 분류번호의 외형적 부피를 감소시키고 분류표를 단순하고 간결하게 하여 분류표의 이해 및 기억을 돕기 위하여 여러 가지 보조표를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보조표의 사용을 지시하는 주기유형을 DDC, NDC,

KDC 모두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DDC에서는 보조표첨가주기에 보조표를 적용하여 기호를 합성하는 방법을 아주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 보조표를 적용한 기호합성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으나, NDC와 KDC에서는 해당 분류항목 내에서 보조표를 적용할 범위를 제시하거나 참조하여 보조표를 적용할 여타의 범주만을 제시해 주고 있어 보조표의 활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KDC도 DDC처럼 보조표 적용방법에 대한 상세한 지침을 마련하여 분류자들이 보조표를 활용하여 기호합성을 세분할 때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NDC와 KDC에서도 여러 가지 유형의 주기를 제시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DDC에 비해 주기의 설정이 빈약함을 알 수 있다. NDC의 주기형식이 아주 단순하여 분류할 때 주의해야 하지만, 주기의 시작에 별표(\*)를 사용하여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 또한 NDC와 KDC는 모두 기호합성에 대한 주기를 자세히 설명한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는 기호를 합성하여 세분 전개해야 할 경우에 분류자들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분류의 오류가 발생하는 요인이 되고, 분류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KDC도 DDC처럼 세분 전개의 지침이 되는 기능을 갖고 있는 주기에 관련된 상세한 지침을 서문에 명시하여 분류의 오류를 막고 정확하고 일관된 분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5. KDC제5판의 주기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주기는 분류의 특수규정으로서 분류항목의 정의와 범위, 분류항목의 명확성과 항목간의 관련성, 항목의 세분을 위한 지시나 전개 등에 관련된 사항을 설명하거나 지시하는 도구의 기능을 하고 있다. KDC 제5판은 서문에서 범주의 구분 없이 8가지의 유형을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 본표에서는 이전 판보다 더 다양한 주기유형을 도입하여 세분 전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주기유형에 대한 의미와 기능, 그 적용방법이 지침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고 단순한 지시형식의 주기로 되어 있다. KDC 제5판으로 세분 전개하여야 할 경우 주기에 대한 일정한 지침이 없기 때문에 분류자들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분류하여 분류의 오류가 발생할 요인이 되고, 분류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잃어버릴 수 있으므로 향후 KDC를 개정할 때 반드시 서문에 주기에 대한 상세한 지침을 마련하여 일관된 분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현대의 주요 분류표들은 이러한 주기의 기능을 도입 확대하여 분류자들이 세분 전개할 수 있도록 도와 주고 있다.

특히 DDC 23판의 경우에는 20가지 넘는 유형의 주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서문에 주기에 대한 의미와 기능, 그 적용방법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실제 예까지 지침으로 명시하고 있다. DDC 23판에는 이러한 지침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분류자들이 정확하고 일관된 분류를 할 수 있으며, 분류기호의 공유가 가능하게 되어 60개국 이상의 국가서지에 DDC 분류번호가 부여되고 있다. 그러나 KDC 제5판은 범주의 구분

없이 8가지의 주기유형을 제시하고 하나의 주기유형에 여러 가지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 주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KDC의 특성에 맞도록 기존의 주기유형을 재정립하고, 필요한 부분에서는 새로운 주기유형을 도출하여 이를 적용함으로써 KDC 5판이 지니고 있는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성하여야 할 것이다. 그래서 DDC 23판에서 구분하고 있는 주기의 범주에 따라 KDC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1) 해당 분류항목과 그 세목에 나타나 있는 사항을 정의 및 설명하는 주기

이 주기는 해당 분류항목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정의 및 설명 주기, 범위주기, 한정주기, 분류지시주기 등 있다. 제시된 항목에 대한 정의가 주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세목이나 다른 사전에 의하여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여야 하며, 범위주기와 포함주기의 형식을 '~을 포함한다', '~등을 포함한다', '~을 분류한다'로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어 혼란을 초래하게 된다. 그러므로 향후 KDC 개정판에서는 분류자가 해당 분류항목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고 분류할 수 있도록 분류표에서 의도하는 해당분류항목의 의미와 기능, 그 적용방법에 대한 상세한 지침이 필요하다.

### (2) 입석의 주제를 식별해 주는 주기

DDC에서 Including으로 시작되는 주기로서 해당 기호의 의미가 분류항목에 명확하게 나타나 있는 것보다 좁은지 넓은지를 지시하는 주기의 형태이다. 또한 하나의 분류항목 아래에 그 적용의 특수한 관계를 열거하고 있는 것으

로 특정 주제뿐만 아니라 그 아래의 종속적인 세목들에도 함께 적용되는 주기이다. KDC에서는 범위주기, 한정주기, 포함주기는 '~를 포함한다', '~등을 포함한다'는 동일한 형식으로 사용하고 있어 이들 주기유형이 수행해야 하는 기능이 모호함으로 이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

(3) 다른 분류항목에 나타나 있는 사항을 지시하는 주기

DDC에서는 이 유형의 주기는 “분류번호 내에 분류될 주제의 범위를 정의해 주는 주기”라고 설명하고 있다(Scott 1998, 27). 이는 분류항목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종속적인 주제를 그 항목에 분류하도록 지시하는 주기이며, 분류항목에 포함된 주요 주제들을 열거하거나, 동일사물에 대한 다른 방식의 관점을 지시하기도 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주기는 참조주기인데 KDC의 경우는 '보라'참조와 '도보라'참조의 구분 없이 하나의 형식으로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하도록 이용하고 있어 참조의 지시를 받는 해당 주제의 분류를 모호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KDC에서도 분류항목의 정확한 세분을 어렵게 하는 요인을 없애기 위하여 보라참조주기와 도보라참조주기를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지시형식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4) 본표와 보조표의 변경사항과 불규칙성을 설명해 주는 주기

본표와 보조표의 새로운 변경사항과 특별규정으로 발생된 본표와 보조표의 불규칙성을 설명하기 위해 DDC에서는 개정주기, 미사용주기, 재배치주기, 사용금지주기 등이 사용되고 있다.

NDC와 KDC에서는 개정주기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 해당분류항목의 세목에서 변경되어진 사항을 주기로 지시하고 있어 분류자가 이전 판의 변경사항을 쉽게 파악하여 분류의 혼란을 피할 수 있으므로 향후 개정시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5) 기타 분류방법을 지시하는 주기

DDC 23판은 분류표에 전개되어 있지 않는 항목들도 기호합성에 관련된 주기를 도입하여 세분 전개할 수 있으며, 분류표의 전개를 간략화하여 표가 방대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이 주기에는 표준세구분 첨가주기, 보조표 첨가주기(T.2-6), 세구분지시주기, 다른 항목의 일부 기호를 첨가하는 주기, 본표에 제시된 부가표 첨가주기, 기호합성의 순서를 자세하게 설명한 열거순서주기, 여러 측면이나 특성을 다루고 있는 문헌을 분류할 때 기호합성의 우선순위를 지시하는 주기, 분류하기 어려운 분야의 분류를 도와주고 관련된 번호들 간에 선정지침을 제공해 주는 매뉴얼주기가 있다. DDC는 이러한 주기의 사용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지침을 서문에 제시하고 있어 분류자들에게 명확한 기호, 기호의 범위, 관련기호들 간의 선택에 관한 부가정보를 제공하여 분류의 정확성을 높이고,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 그러나 NDC와 KDC에서도 기호합성에 관련된 주기가 도입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주기가 단순히 어떤 보조표를 이용할 것인지 지시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으므로 보조표를 활용한 기호첨가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렵다. KDC에서 보조표를 활용한 기호첨가에 대한 지시형식을 보면 '~은 표준 구분한다', '지역구분표에 따라

세분한다', '~710-790과 같이 구분한다 또는 710-799와 같이 언어구분 한다', '711-718과 같이 구분한다', '문학형식구분표에 따라 세분한다', '각종과는 211-218과 같이 세분할 수 있다' 등으로 단순히 지시만 하고 있다. 향후 개정시에는 '~표에 따라 세분한다'로 통일하고 보조표의 적용방법과 기호합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지침으로 제시하여 분류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세분 전개하기 어려운 분류항목의 이해가 용이하도록 도와주고 관련된 번호들 간에 선정지침을 제공해주는 매뉴얼주기와 같은 지침서도 필요하다. 향후 KDC도 명확한 지침에 따라 일관된 분류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6) 양자택일주기(Options)

한 주제를 분류표상에 두 곳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도서관이나 이용자 성격에 따라 분류자가 한 곳으로 선택할 수 있게 지시하고 있는 주기로서(김명옥 1986, 68) 이는 도서관의 장서에서 어느 한 측면을 강조하기 위하여 본표와 보조표에 제시된 기호 대신에 선택할 수 있는 것이며(오동근, 여지숙 1998, 2), 해당 측면에 대해 짧은 기호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시되기도 한다. 특히 전문도서관과 같은 특정분야의 도서를 중심으로 장서를 늘려가는 도서관에서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주기의 형태라고 볼 수 있다. DDC에 제시된 양자택일주기는 임의 규정주기로 괄호에 묶어 'Option'이라는 단어로 시작되는 주기와 알파벳순 및 연대순배열주기에 대한 상세한 지침이 제시되어 있다. 향후 KDC 개정시에는 단순하게 지시하는 형식이 아니라 상세한 설명과 지침을 명시하여 도서관

의 특성에 따라 정확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KDC에서는 분류항목을 세분함에 있어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만을 제시하는 유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른 분류번호를 사용하여 세분할 수 있도록 하는 유형은 '~와 같이 세분한다'는 지시만 되어 있고 기호합성의 순서와 방법에 대한 설명이 없으며, 또한 해당 분류항목의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시하고 있지 않으며, NDC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주기유형을 적용하기 위한 지침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는 단순히 주기를 지시하는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특수한 목적을 가진 도서관에서의 분류작업의 모호함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 따라서 KDC 제5판에 도입된 다양한 유형의 주기에 대한 적용에 있어서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을 명시함과 동시에 구체적인 방법과 지침을 제시하여 분류기호의 정확한 생성과 합성의 도구로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실용분류표가 되도록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 6. 결론

분류표에서의 주기는 학문의 발전과 함께 그 중요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으며, 주요 분류표에서는 각 분류표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주기를 채택하여 세분 전개할 수 있도록 지시하고 있다. KDC 제5판 서문에 제시하고 있는 주기의 유형은 8가지이지만 실제 본표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기의 유형은 정의 및 설명주기, 범위주기, 한정주기, 이전표목주기, 포함주기, 분류지시주기, 타분류번호지시주기, 참조주기, 보조표

첨가주기, 세구분지시주기, 별치주기, 미사용주기, 사용금지주기, 재배치주기, 양자택일주기, 배열주기, 별명주기 등 17가지이다. 이렇게 다양한 유형의 주기를 사용하고 있으나, 그에 대한 상세한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급변하는 학문의 발전과 세분화에 따른 주기의 적용방법이 상당히 미흡하다. 따라서 분류의 정확성과 일관성의 유지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향후 KDC의 개정시에는 반드시 주기에 대한 상세한 지침을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 DDC 23판, NDC 신정9판 그리고 KDC 제5판의 사용된 주기를 비교 분석한 결과 KDC의 주기에 대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해당분류항목의 의미를 설명해 주는 정의주기의 사용빈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해당 분류항목과 그 세목의 개념을 정확하게 설명해 줌으로써 분류의 정확도를 높여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해당 분류항목에 분류할 것을 지시하는 주기와 포함하고 있는 범위를 나타내는 주기의 형식을 동일하게 ‘~를 포함한다’, ‘~등을 포함한다’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분류자에게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위한 형식이 필요하다.

셋째, 다른 분류항목에 나타나 있는 것을 알려주거나 다른 사항에 대한 참조를 지시하는 주기에 있어서, KDC에서는 화살표(→)로 ‘보라’참조와 ‘도보라’참조에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다. 이는 참조되는 주제의 계층관계를 모호하게 하고 있으므로, DDC처럼 명확하게 양자 간의 구분이 필요하다.

넷째, DDC에서는 본표와 보조표의 새로운 변경사항과 특별규정으로 발생된 본표와 보조

표의 불규칙성을 설명하기 위한 주기를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해당분류항목의 세목에서 변경되어진 사항을 주기로 지시하고 있어 분류자가 이전 판의 변경사항을 쉽게 파악하여 분류의 혼란을 피할 수 있으므로 향후 개정시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다섯째, 주요 분류표들은 본표에 전개되어 있지 않은 항목들도 기호합성에 관련된 주기를 도입하여 세분 전개할 수 있으며, 분류표의 전개를 간략화하여 분류표가 방대해 지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KDC도 보조표첨가주기와 세구분지시주기를 적용하여 세분 전개하고 있지만, 상세한 설명이나 지침이 없이 어떠한 보조표를 사용해야 할 것인지 단순한 지시형식으로만 되어 있다. 이는 분류작업의 모호함을 가져올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상세한 적용방법을 명확하게 지시해 주는 지침이 반드시 필요하다. 향후 개정시에는 DDC의 매뉴얼주기와 같이 어려운 분야를 분류할 때 일관된 도움을 주고, 관련된 번호들 간에 선정지침을 서문에 제시하여 분류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DDC에서는 분류번호의 사용이 중지되었음을 알려주는 주기, 주제가 다른 번호로 옮겨졌음을 알려주는 주기, 번호를 사용하지 못함을 알려주는 주기가 각각의 주기유형으로 구분되어 사용되고 있는 반면, KDC에서는 이 세가지의 주기가 하나의 형식(각괄호)으로 혼용되고 있다. 이는 변경의 의미와 범위를 모호하게 하여 분류표의 일관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명확하게 구분 지시하여 분류자들의 정확한 판단을 도와 분류의 오류를 방지하고 일관성을 유지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향후 이상과 같은 사항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KDC는 분류자들의 정확한 판단을 도와주고, 분류의 오류가 발생하는 요인을 없애 주고, 분

류기호의 생성과 합성에 정확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게 도와주는 가장 실용적인 분류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권홍정. 2002. 『한국십진분류법(KDC) 주기분포의 분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청주대학교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김명옥. 1998. 『자료분류법』. 서울: 구미무역.
- 김상미. 1994. 『DDC 20판의 주기분석에 근거한 보조표 분류지원 전문가시스템설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김자후. 1996. KDC(한국십진분류법)4판에 대한 제언. 『도서관학논집』, 27: 369-389.
- \_\_\_\_\_. 2009. KDC 5판에 대한 제언.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0(2): 5-26.
- 오동근, 여지숙. 1998. 한국도서관을 위한 DDC 21판 임의규정의 적용방안. 『도서관학논집』, 29: 313-342.
- 윤희운. 2010. 『정보자료분류론』. 완전개정 제3판. 대구: 태일사.
- 이승민. 2000. 『KDC에서의 주기유형분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일본도서관협회. 1995. 『일본십진분류법』. 신정 9판. 동경: 일본도서관협회.
- 한국도서관협회. 1964. 『한국십진분류법』.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_\_\_\_\_. 1966. 『한국십진분류법』. 수정판.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한국도서관협회 분류분과위원회. 1980. 『한국십진분류법』. 제3판.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한국도서관협회 분류위원회. 1996. 『한국십진분류법』. 제4판.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_\_\_\_\_. 2008. 『제45회 전국도서관대회세미나4: 한국십진분류법 제5판 발간에 관한 공청회』, 2008.10.8.
- \_\_\_\_\_. 2008. 『한국십진분류법』. 제5판.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한국십진분류법해설편찬위원회. 1997. 『한국십진분류법해설』.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Dewey, Melvil. 2011.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and Relative Index*. 23rd ed./ Edited by Joan S. Mitchell, Editor in Chief; Julianne Beall, Rebecca Green, Ciles Martin, Michael Panzer, Assitant Editor. Dublin, Ohio: OCLC.
- Dewey Service: at glance. 2011. [cited 2011. 7.3.] <<http://www.oclc.org/dewey>>.
- Scott, Mona L. 1998. *Dewey Decimal Clas-*

*sification 21st edition: A Study manual and number building guide.* Englewood, Colorado, Libraries Unlimited.

Tsuneo, Noguchi. 1986. "A Study of Classifi-

cation Note in NDC: Japanese. Toshokan-Kai." *The Library World*, 38(3): 143-147.